

## 중국 茶畫의 표현공간과 그 문화적 함의\*

王雲燕\*\* · 이석형\*\*\*

### 목 차

1. 서론
2. 다화 표현공간의 형성과 변화
  - 1) 다화 표현공간의 형성
  - 2) 역대 다화 표현공간의 변화
3. 다화 표현공간의 유형과 문화적 함의
  - 1) 다화 표현공간의 유형
  - 2) 다화 표현공간의 문화적 함의
4. 결론

### 국문초록

중국의 차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차 문화와 관련된 회화인 다화 역시 다양한 경험과 축적을 통해 자체의 예술 사상과 시각적 전달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 다화는 역대 문인들의 미의식과 정신적 추구를 반영하며, 전통적인 회화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문화적 공간을 창조하였다. 다화는 문인들이 선호하는 예술 표현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국 전통 회화 기법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그 표현공간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인들의 의식과 정서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고 은일의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함축한 공간을 조성하여 문인들의 미적 취향과 깊은 문인 의식을 표현하였다.

**키워드:** 전통 회화, 다화, 표현공간, 품차, 미의식, 유불도 사상, 은일사상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북아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교수(교신저자)

## 1. 서론

당나라 이전에 차는 주로 약용으로 활용하여 갈증을 해소하고 소화를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당송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문인들의 차 애호가 시작되어 차 마시는 풍조가 널리 유행하였다. 陸羽(733-804)의 『茶經』의 등장은 당송시대 중국의 차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불교의 번성과 더불어 승려들이 차를 선호하는 취향이 보편화되었고 문인들도 점차 차 마시는 취미에 폭 빠져들게 되었다. 일상에서 차를 마시는 문인들의 고아한 취미는 화가들에게 풍부한 창작 소재를 제공하였는데, 차를 소재로 한 茶畫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문인 정신이 잘 스며들어 있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취향과 환경에 맞는 독특한 차 마시는 공간을 추구하였고 특히 명대 문인들은 차 마시는 공간의 구성에 대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茶畫는 이러한 중국의 전통 차 문화의 산물이다. 다화는 그 대상이 되는 品茶 공간을 묘사하는 가운데 사상과 감정, 미의식, 취미 등을 융합하였고 이를 통해 전통의 차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화라는 용어는 최근 중국의 차 문화 연구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였다. 그것은 회화 주제가 차와 관련되어 있는 작품을 일컫는 종합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다화는 중국 미술사에서 수묵화에 속하는 회화의 한 장르일 뿐만 아니라 문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어 문인화로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다화는 다양한 시기와 계층 및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품차 관습과 발전 및 변화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다방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차 문화 발전사 측면에서는 다화의 이러한 표현공간과 표현대상으로 인하여 그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중국 전통의 중국 차 문화와 회화 문화의 결합을 통해 생성된 다화의 표현 수단인 품차 공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먼저 다화 표현공간의 기원과 개념 및 각 조대별 다화 표현공간의 변천 등을 정리하고 이어서 다화의

표현공간의 유형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다화 표현공간의 문화적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

필자는 다화라는 연구 주제가 최근에 등장하였으므로 다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전망한다. 또한 중국에서 다화는 오랜 역사를 지닌 차 문화와 회화 문화를 결합한 종합적인 성격의 장르로서 중국 전통회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그 연구 가치는 충분하다. 다화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다화에는 중국 차 문화와 회화 문화의 특성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으므로 중국 차 문화사와 회화 문화사의 가치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의의가 있다. 둘째, 차가 중국 전역에 전파된 당대 이후 명·청대까지 다화에는 당시 지식인의 사상이 녹아있고, 그들의 품차 공간 역시 그들의 문화적 소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문인과 그 문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셋째, 중국의 다화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어 중국 차 문화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이다.<sup>1)</sup> 한국에서의 다화 관련 연구 현황 역시 전문적인

1) 최근 중국의 다화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에 대한 연구로 胡丹의 『茶藝風情-中國茶與書畫篆刻藝術的契合』(北京: 光明日報出版社, 1999), 馮英의 『茶文化與詩書畫-淺論中華茶文化的發展及其與詩書畫的關係』(『農業考古』, 1996), 姚國坤, 張莉穎, 李茂容, 江萬緒의 『試論茶畫的發生、發展與構成』이 있다. 이들은 고대 차를 소재로 한 글씨 그림 전각 등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둘째, 다화에 대한 개괄적인 감상 분석으로 裘紀平의 『中國茶畫』(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03), 於良子の 『翰墨茗香』(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03)이 있다. 이들은 중국 고대 다화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 다화 작품의 기초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역시 다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셋째, 역대 다화에 대한 연구로 王書耕의 『茶文化的形象分析-歷代茶圖賞析』(『農業考古』, 1993), 曉紅의 『中華一壺茶-茶的故事』(北京: 中國林業大學, 2007)이 있다. 이들은 당·송·원대 각 시기의 다원적인 다화 풍경과 명대 다화의 '山水之境' 및 청대 다화의 '寫意小品'을 논하였다. 한 조대 다화에 대한 연구로 당대 다화를 다룬 傅及光的 『唐代茶畫、茶碑、茶帖之研究』(『高參通識教育學刊』, 2006)은 다화의 의미에 대해 분석을 시도했고, 송대 다화를 다룬 孫曉燕의 『宋代茶畫藝術研究』(『山西檔案』, 2014), 張瑩의 『宋代茶事繪畫及其文化內涵探析』(開封: 河南大學, 2012)는 다화의 문화적

연구서가 적고 주로 학술지나 학위 논문에서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다화의 표현공간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분적이거나 다화 연구의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향후 중국 다화의 표현공간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다화 표현공간의 형성과 변화

### 1) 다화 표현공간의 형성

#### (1) 차와 회화의 관계

중국의 차 문화는 오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쳤고 당대에 이르러 비로소 상대적으로 완전한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의 차 문화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은 회화와 결합한 다화라는 회화 장르로 발전되었다. 다화 작품들은 예술가의 사상과 감정 표현을 전달하는 동시에 고대 사람들이 차에 대한 열망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차 문화와 회화 예술은 각기 독립적인 영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차 문화는 회화에 녹아들어 있고, 회화에는 차 문화의 의미가 수용되어 있어서 이 두 요소는 서로 작용하고 연계하여 다화라는 독특한 문화 요소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송대는 경제와 문화, 과학 기술 및 예술의 발전이 절정에 이르렀

---

함의와 후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고대 차 소재 회화의 거시적인 파악 및 체계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다. 넷째, 차 문화와 관련된 저작 속에서 다화를 언급한 것들이 있다. 程啓坤, 姚國坤, 張麗穎의 『茶及茶文化十二講』(上海: 上海文藝出版社, 2010)은 차 문화를 언급하면서 다화를 일부 다루었고, 林安君의 「中國歷代畫家與茶文化」(『農業考古』, 1993)는 화가와 차 문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들은 본격적인 다화 연구는 아니다.

던 시기로 차 문화와 회화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형성되었다. 송대 지식인들의 차와 회화에 대한 시각은 아래 蘇東坡의 글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차는 입으로 마시기에 좋고, 먹은 눈으로 보기에 좋다. …… 차와 먹 두 가지는 상반된 위치에 있다. 차는 흰색을 추구하며, 먹은 검은색을 추구한다. 차는 무거운 것을 추구하고 먹은 가벼운 것을 추구한다. 차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먹은 오래된 것을 추구한다. 좋은 차와 좋은 먹은 모두 향기가 있으니 이는 그 덕성이 같기 때문이다. 둘 다 단단한데 이는 그 절조가 같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인과 군자는 검기도 하고 밝기도 하며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여 같지 않지만 그 덕성과 절조는 한 가지인 것이다. (茶可於口, 墨可於目. …… 茶與墨二者正相反, 茶欲白, 墨欲黑; 茶欲重, 墨欲輕; 茶欲新, 墨欲陳. 上茶妙墨俱香, 是其德同也; 皆堅, 是其操同也. 譬如賢人君子黔晰美惡不同, 其德操一也.)<sup>2)</sup>

蘇東坡는 차와 먹이 그 표면적인 특성은 상대적이지만 내면적인 특성은 실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 즉, 차와 회화는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차와 회화는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고, 모두 도덕적인 품성과 정서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 같지만 내재된 동질성으로 인하여 차 문화는 끊임없이 회화 예술에 그 소재를 제공하면서 회화의 영역을 확장시켜왔고 또 차를 소재로 한 회화는 차 문화를 통한 문인의 취미 확장에 기여하는 등 상호 교류와 발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송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차와 회화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작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회화의 작용은 차 문화를 번성시키고, 차는 음차를 통해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다화는 차 문화 거시 체계에서 보면 차 문화의 한 예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화는 예술 발전 과정에서 성숙한 차 문화 체계의 중요한 산물이다. 다화는 화가들이 차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한

2) [宋]蘇軾著, 孔凡禮點校, 『蘇軾文集·書墨』, 北京: 中華書局, 1986, 2221쪽.

것을 표현한 동시에 음차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 (2) 다화 표현공간의 기원과 개념

다화의 기원은 중국 차 문화와 회화 예술의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차 문화 학자인 浙江林業大學茶文化學院의 陳文華(1935~2014) 교수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차 마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등장했다.(唐代首次出現描繪飲茶場面的繪畫.)”<sup>3)</sup>라고 하였다. 당대는 중국 역사에서 정치와 경제, 과학 기술 및 문화가 본격적으로 번영을 시작한 국제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차 문화는 전국적으로 전파되었고 또한 크게 발전하였다. 당대의 문인들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며 차 문화를 절정으로 끌어올렸고 아울러 많은 다화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들 작품은 당시 풍부하고 다양한 품차 장면과 사람들이 함께 감상하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이렇게 볼 때 다화에서 차 마시는 공간을 주된 표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전통 회화는 선과 먹, 구도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사물에 내포된 내면적인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다화는 전통 회화의 표현 기법과 이념을 바탕으로 당시 독특한 소재인 차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간을 예술적으로 창조한 회화의 한 영역이다. 다화 표현공간의 등장은 중국 고대 문인의 미의식과 차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차와 문인의 생활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으니, 전통 문인들은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면서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는 등 차를 통한 문화의 교류를 일상화하였다. 이러한 생활방식과 예술 표현 형식이 결합되어 다화 표현공간의 풍격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다화 표현공간의 개념은 학계에서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다. 江西省中國茶文化研究中心의 余悅는 차를 마시는 장소와 건축물을 품차의 공간으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다.<sup>4)</sup>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음료를

3) 陳文華, 『中國茶文化基礎知識』,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1999, 15쪽.

4) 余悅, 「中國古代的品茗空間與當代復原—在日本東京演講提要」, 『農業考古』, 2006, 1쪽.

마시는 행위가 아니었다. 명대 徐渭(1521~1593)의 『煎茶七類·茶宜』에서는 품차에 적합한 분위기와 환경에 대해 “시원한 누대, 조용한 방, 밝은 창가, 굽은 의자, 승방, 도원, 술밭의 바람, 대숲 속의 달빛,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걸으며 시를 읊조릴 때, 청담을 나누거나 서권을 잡고 있을 때(涼台靜室, 明窗曲几, 僧寮·道院, 松風竹月, 晏坐行吟, 清譚把卷.)”<sup>5)</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통적인 공인을 받아왔던 이러한 품차 환경은 품차의 공간을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공간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사상적 분위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화의 표현공간은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된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화의 표현공간은 주로茶具와 茶景에 집중되어 있다. 다구는 주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시각화했다. 반면 다경에는 다방과 정원, 산수 및 자연 풍경 등의 장면이 포함되었다. 즉, 공간의 배치와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차 문화의 미와 풍격을 전달하고자 했다. 정원과 산수는 차 문화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제공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우음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다화는 특정 공간을 표현하여 차 문화가 제공하는 안일함과 고아함 및 선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다화는 전통적인 회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차를 주제로 하거나 차를 매개체로 사용한다. 다화의 표현공간은 여러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평면 공간이다. 다화는 일반적으로 평면에 그려지는데 예술가는 선과 형태, 색상 및 질감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그림의 평면 감각을 구성한다. 그림 속의 다구와 차 등 물체의 위치와 크기 및 배치는 그림의 평면 효과와 계층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입체 공간이다. 다화는 평면 위에 그려지지만, 화가는 원근법과 조명 효과를 이용하여 그림의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은 차 마시는 공간의 움직임과 자세, 다구의 배치와 배열을 재치 있게 묘사함으로써 구도와 원근 기법을 통해 진실한 공간 감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구와 다른 물체는 회화 기법을 통해 원근 거리를 표현함으로써 입체감과 현실감을 창출할

5) [明]徐渭書, 駱芑芑編, 『徐渭草書二種·捧讀、煎茶七類』, 北京: 榮寶齋出版社, 2000, 23쪽.

수 있다. 원거리와 중복, 흐릿한 묘사 등의 기법을 재치 있게 활용함으로써 작가는 그림 속 물체의 거리감과 층차감을 전달하여 입체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셋째, 감정 공간이다. 다화는 색조와 빛, 필치 등의 예술 기법을 활용하여 차 문화와 관련된 감성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따뜻한 색조와 부드러운 빛, 유려한 필치를 통해 다화는 조용함과 편안함, 함축적인 차 문화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다화는 구도와 요소의 배치 및 감정적 표현을 통해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감각을 창출한다. 이러한 작가의 표현 기법은 가상의 차 문화 공간으로 인도하여 상상 속에서 차의 향기와 다구의 촉감 및 환경을 느끼고 차 문화의 내용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화는 평면과 입체감 두 가지 표현 기법을 통해 화면의 공간감을 구성한다. 화가는 선과 형태, 색채, 빛 등의 요소, 그리고 원근법, 빛과 그림자 효과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그림 속 차의 문화적 분위기와 사물의 실재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표현 기법으로 다화의 독특한 공간감을 조성하고 몰입도를 상승시켜서 차 문화의 매력과 그림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다화의 공간 표현은 회화의 표현 기법을 통해 창출되는 물리적이고 감성적이며 정신적인 다양한 차원의 공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화에 표현된 주제와 감정, 분위기 및 시각적 효과는 마치 그 공간에 함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차 문화의 아름다움과 사유를 느낄 수 있게 한다.

### (3) 다화 표현공간의 특징

다화에 있어서 차 문화는 회화와 결합되어 그 속에 녹아있고, 회화는 차 문화와 결합되어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 두 요소가 서로 연계하여 다화라는 독특한 문화 요소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다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차가 일상이 되고나서 화가들은 차와 관련된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수묵 기법을 사용하여 붓의 표현력과 먹의 농담의 운용을 통해 품차의 분위기와 그 멋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둘째, 회화에는 차 문화가 표현되어 있고, 차 문화는 회화 예술에 끊임없이 다양한 소재를 제공

하는 등 상호 교류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그래서 차와 회화는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작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다화를 통해 창작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화는 예술 발전 과정에서 성숙한 차 문화 체계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다화는 문인 화가들이 차 문화를 이해하고 인식한 것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품차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다화는 문인과 화가들이 미의식을 탐구하는 과정 중에 차 문화의 영향으로 비롯된 것이다. 넷째, 다화는 차를 마시는 장면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묘사함으로써 차의 풍격과 회화라는 예술을 결합하고 이것으로부터 문인들의 이상적인 정신과 삶의 태도를 표현하였다.

다화는 차의 표현공간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화면의 표현 기법을 통해 차 문화의 풍격과 정서를 전달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화는 당대에서 비롯되었고, 송대에서 더욱 발전하여 완성되었으며, 이후 원명청대 회화 예술에 큰 영감을 주었다. 물리적인 환경에서 볼 때, 다화의 표현공간은 물리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품차의 물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며, 품차 활동의 주체가 되는 공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다화 표현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화의 표현공간은 회화 형식을 통해 묘사된 품차 공간으로, 그 표현공간 묘사를 통하여 차 문화의 정신을 전달한다. 둘째, 다화의 표현공간은 주로 공적인 공간인 茶房과 茶館, 자연환경 등과 개인적인 공간인 書齋와 개인 茶室, 禪茶室 등으로 구성된다. 공적인 공간인 茶房은 간결하고 우아한 장식으로 문인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 개인적인 공간인 茶園과 茶亭 등에서 차 마시는 장면은 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가 되며, 화가들은 자유로운 표현 기법으로 차의 맛과 차 마시는 공간의 장면을 전한다. 셋째, 특히 문인 사대부들은 공적인 공간인 文會의 茶席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읊는 등 차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그림 속에 인문 정신을 담아낸다. 넷째, 다화의 표현공간에는 다양한 기능적 요소가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문화적 기능으로 차를 끓이면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차 문화를 향유하

고, 다음은 휴식의 기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며, 그리고 사회적 기능으로 품차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류를 추구한다. 다섯째, 다화의 표현공간에는 風景과 花鳥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그려서 차 문화의 내용과 분위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다화의 표현공간은 차 문화의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특징을 표현한 공간인 것이다.

## 2) 역대 다화 표현공간의 변화

### (1) 唐宋代 다화의 표현공간

당송대에는 산수와 인물을 주제로 한 다량의 다화 작품이 등장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미적 탐구를 보여주었다. 차 문화의 확산과 함께 품차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유행하는 습속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당송대인의 차 마시는 장소는 주로 실내인 다실과 반개방 공간 및 자연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이나 찻집 등의 실내 공간, 사찰 혹은 정원이나 산수 등의 자연 공간이 그것이었다. 문인들은 생활에서의 미적 균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실내 공간을 창조하였으며 아울러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조용한 품차 환경을 매우 중시했다. 그들의 자연 산수에 대한 동경은 전통문화의 樂山樂水 미학에 대한 동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天人合一 사상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sup>6)</sup> 문인들은 품차하면서 함께 산수 자연 환경을 감상하고 시를 읊으며 그림을 그리고 정서를 함양했다. 품차 애호가들은 자연으로의 귀의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강렬한 정신적 열망을 충족시키고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당송대 다화는 그림의 내용과 공간을 기반으로 차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인물, 환경 및 다구 정물 중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물 중심의 다화는 주위환경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물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 중심의 다화는 정원과 산수 등 경치를 중점으로 삼으며, 인물과 품차라는

6) 朱海燕, 「中國茶美學研究\_唐宋茶美學思想與當代茶美學建設」, 湖南農業大學, 2008, 43쪽.

소재를 그 공간에 매우 잘 녹여냈다. 다구 정물 중심의 다화는 찻잔과 차 주전자 등 다구를 주로 묘사하였고, 인물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숨겨졌다.

당대 문인들의 폼차 공간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차가 남방지역에 한정되었었는데 당대에 들어서는 집집마다 차나무를 심어 중후기가 되면 차 마시기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차 모임이 일상화되면서 차를 즐기는 환경을 추구하게 되었고 폼차를 위해 특별히 공간을 설계하기도 하였다. 당대 문인들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미적 취향을 나타냈고 차를 마시면서 시를 읊고 음악을 듣는 등의 예술 활동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다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 사회의 차 문화를 반영하는 기록 수단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차마시는 풍조가 더욱 성행하여 길거리마다 찻집이 들어섰고 차는 일상의 음료가 되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차 품질을 비교 평가하는 鬪茶가 유행하였고 황족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차가 애호되었다. 송대는 문인이 우대되던 시기였는데 당시 유행하던 차는 정신수양을 중시하던 문인의 심미관과 맞아서 일부 문인들은 폼차를 통하여 초연한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였다. 또한 송대에는 도자업이 발달하여 차 관련 용구가 다양하게 생산되어 차문화 수요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차 문화의 발달과 문인사대부의 정신적 추구에 힘입어 송대는 다화의 황금시대를 열게 되었다.

송대는 다화의 표현공간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송대의 다화가 다양한 공간을 표현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림 속 인물의 신분과 인원수의 차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폼차 활동의 내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다화 표현 공간에 동원된 여러 요소들은 공간의 기능과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송대 다화에 표현된 공간은 참여 주체와 인원, 활동 장소 및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사적인 장소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공간, 둘째 문인들의 文會 공간, 셋째 승려와 문인의 공유 공간, 그리고 넷째 문인이 자연에 귀의하는 자연 공간 등이 그것이다.

첫째, 혼자 차를 마시는 공간의 대표적인 다화는 佚名의 「著色人物圖」,

佚名의 「盧仝煮茶圖」, 劉松年の 「四景山水圖」, 趙伯駒의 「風檐展卷圖」 등이 있다. 둘째, 문인들의 文會의 공간은 참석자의 신분과 그에 어울리는 활동 내용 및 공간 배치 형태를 다양화하여 광범위한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문인 雅集의 역사는 춘추전국 시대에서 비롯되어 당대에 이르면 귀족들을 비롯한 상류층의 중요한 사회 참여 활동으로 발전하여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게 되었고 송대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다화는 宋 徽宗 趙佶의 「文會圖」, 劉松年の 「攬茶圖」, 「十八學士圖」, 馬遠의 「西園雅集圖」 등이 있다. 셋째, 승려와 문인의 공유 공간은 품차와 함께 참선하고 도를 탐구하는 활동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맞는 완벽하고 풍부한 공간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당송대 도교 불교 등의 번성과 문인들의 종교 사상에 대한 존중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인 다화는 난징박물관의 「蓮社圖」, 상하이박물관의 「蓮社圖」,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蓮社圖」 등이 있다. 넷째, 문인들이 자연에 귀의하는 자연 공간은 인공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산수 사이에도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다화는 梁楷의 「觀瀑圖」, 燕肅의 「邃谷仙僊圖」, 劉松年の 「四景山水圖」 등이 있다.

[그림 1] 趙佶 「文會圖」 7)



7) 裘紀平, 『中國茶畫』,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14, 38쪽.

## (2) 元明代 다화의 표현공간

원대는 송대에서 명대로 향하는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인 몽골족이 중국을 다스리면서 과거제까지 폐지하고 중상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많은 한족 문인들은 낙향하여 은거를 선택하였다. 많은 현실적 소망을 품고 있는 문인들은 자아실현을 펼칠 곳이 없어 내면의 고민을 완화하기 위해 현실을 도피하고 고립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많은 회화 작품에는 은둔의 정서가 담겨있다. 화가들은 차와 자연 풍경을 그림에 융합시켜 평온하고 소박한 예술 풍격을 선보이고, 동시에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고 더 깊은 사유의 경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다화 작품들은 대체로 비슷한 풍격을 나타내며, 문인 사대부와 예술가들의 소극적인 저항과 은둔적인 태도를 반영하여 민족적 갈등에 처한 자신들의 상황을 보여주었다.<sup>8)</sup> 錢選(1239~1299)의 「盧仝煮茶圖」는 宋末元初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그림 속 작가는 바닥에 앉아있으며, 서동에게는 차 우리는 일을 시키고 있다. 서동 중 한 명은 부채를 들고 바닥에 앉아서 차로에 부드럽게 부채질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곁에 공손하게 서 있다. 그림 속의 나무와 돌은 기타 자연과 어울려 한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은거 생활에 대한 끝없는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원대의 다화는 환경의 묘사에 더 중점을 두었다. 원대의 다화 속 인물은 당송대의 다화처럼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고, 건물과 함께 장식 요소로써 그림의 구성 요소로 대신 사용되었다. 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시의 은둔적인 풍격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원대 시기의 문인들이 대부분 산속에 은거하며 수목 산수를 주축으로 삼았던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명대 초기에도 다양한 사회 모순은 여전하였다. 한족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자리를 잡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식인들에게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문인들은 자신들의 포부를 펼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문인들로 하여금 점차 성

8) 傅及光, 「唐代茶畫、茶碑、茶帖之研究」, 『高參通識教育學刊』 2006, 169~190쪽.

리학에서 멀어지고 도가 사상의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었다. 명대의 문인 화가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와 도가 사상을 차 문화에 융합시킨 독특한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학과 예술 작품을 창작했으며, 특히 명대 중기와 후기에 이르러서 강남 문인들은 청아한 차 문화를 발전시켰고, 차 문화는 평온하고 안정된 예술적 풍격을 갖추어 명대 문인들의 선호하는 대상이 되었다.<sup>9)</sup> 차를 통하여 그들은 담백한 태도와 품행을 길렀고 차 예술의 진정성을 발전시켰으며 아울러 차 문화의 청아하고 담백한 특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예술 표현 공간을 창조했다.

臺灣 학자 吳智和는 이 시대 품차 공간을 소실형(專室式), 서재형(書齋式), 신선거처형(斤堂式), 정자형(亭榭式) 및 야외형(戶外式)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sup>10)</sup> 명대 문인들은 고아한 풍격을 중시했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환경에 매우 신경을 썼다. 소실형과 서재형의 표현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를 즐기는 것은 정사에 적합하다(品茶宜精舍.)”라는 말은 徐渭의 『徐文長秘集』 11)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馮可賓의 『岍茶箋』에서도 ‘精舍’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사는 도사나 승려들의 수련 또는 거처하는 곳으로 서재와 유사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선거처형과 정자형 및 야외형의 표현공간은 명대인들이 고아한 풍격의 공간을 좋아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을 추구한 결과라고 한 수 있다. 그들은 고아한 풍격으로 의기투합한 지인들과 선호하는 공간에서 품차를 추구했으며, 이러한 품차 공간의 조성은 감정을 교류하는 경지로 승화하고 여기에 차의 예술적 풍격을 함께 표현해내게 되었다.<sup>12)</sup> 이러한 상황은 다화의 표현공간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품차 공간은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차

9) 黃慧君, 「明后期江南的文人茶空間解讀及當代價值」, 蘇州大學, 2017, 20쪽.

10) 吳智和, 「明代茶人的茶寮意匠」, 『史學集刊』 第3期, 1993, 15~21쪽 참조

11) [明]徐渭輯, 『刻徐文長先生秘集十一卷』, 『四庫存目叢書』, 52쪽.

12) 薛晨, 周智修, 「中國古代品茗空間探究」, 『中國茶葉』, 2017, 38~39쪽.

를 마실 장소를 선택할 때 명대 사람들은 평화로운 산림과 소박한 다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당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용함과 자유로움, 소박함, 편안함, 우아함이라는 정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를 동원하였다. 차를 마시는 인원수도 중시되었는데, 명대 陳繼儒는 『岩幽棲事』에서 “차를 마실 때 한 사람이면 신묘함을 얻고, 두 사람이면 정취를 얻으며 세 사람이면 맛을 얻는다. 여섯 일곱 사람이란 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品茶一人得神, 二人得趣, 三人得味, 六七人是名施茶.)<sup>13)</sup>”라고 하여 지나치게 많은 사람과 차를 마시는 것을 경계하였다.

대체로 명대 다화의 표현공간의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혼자 차를 마시는 경우로, 차는 독서와 연주, 경치 감상, 낚시 등 정신수양에 도움이 되는 행위와 함께 하고 있다. 둘째는 두 사람이 마주하여 차를 마시는 경우로, 친구를 초대하여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찻집에서 함께 품차를 하는 것이다. 차를 끓이는 공간은 나무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하여 차 마시는 공간과 분리하여 표현한다. 셋째는 세 명이 함께 차를 마시는 경우로, 문인들이나 승려들이 품차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상황도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장소가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문인들이 차를 마시는 文會인데, 이때는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병풍을 사용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있다. 정원에는 풍경을 주제로 한 병풍이 있는데 이것은 공간의 풍격과 그 깊이를 증가시킨다. 이 분리 공간에는 태호석과 가산 등의 요소를 자주 사용했다. 대표적인 다화는 文徵明의 「惠山茶會圖」, 「東園圖」, 謝環의 「杏園雅集圖」, 周翰의 「西園雅集圖」 등이 있다.<sup>14)</sup>

13) [明]陳繼儒, 『岩幽棲事』.

2023-10-7 19:40 <https://www.zhonghuadiancang.com/rulizhexue/yanyouqishi/>

14) 何鑫, 楊傑, 「明代茶畫藝術研究」, 『福建茶葉』, 2017, 292~293쪽.

[그림 2] 文徵明 「惠山茶會圖」<sup>15)</sup>

명대 후기에 이르면 다화의 표현공간 중에서 실내와 실외 사이의 완충 공간에 매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공간은 일종의 모호함으로 표현되었다. 이 시기 차 문화는 회화의 여백 예술을 참고하여 다구와 차, 엄숙한 제물, 악기 등의 물건을 배치하여 허실의 대비 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식물의 상징적 의미의 운용은 문인들의 관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으며, 이미지를 묘사하고 공간 표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원명 시기의 다화는 환경에 대한 묘사가 당송보다 더욱 풍부하고 섬세하여졌고, 공간 구성이 주택의 뜰에서 자연의 산수로 확장되었다.

### (3) 清代 다화의 표현공간

송대 한족과 차별화 정책을 시행한 원대 몽골족과 달리 만주족은 문화 정책에 있어 중국화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청대의 사회 분위기는 명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대 초기에 문인과 지방 유력자들은 여전히 차 문화의 주요 참여자로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차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많은 다화 작품에서 품차 활동은 더욱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되었다. 청대 다화의 창작 주제는 주로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康熙와 乾隆 시기의 다화는 조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청대 문인들도 명대와 같이 차를 통한 일상적인 차 문화를 회화와 서로 융합시켰다. 청대 회화에서 문인화는 원명 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아 예술문화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문인화는 산수화의 기법을 계승하면서도 혁신

15) 裘紀平, 『中國茶畫』,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14, 141쪽.

을 계속했고, 수묵 표현 기법 또한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다화는 문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문인 의식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차는 문화 활동의 상징이 되었고, 다화의 내용과 풍격 및 표현 방식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세련되고 독자적인 풍격을 추구했다.

丁觀鵬의 「太平春市圖」는 몇 명의 문인 목객들이 나무를 의지하여 차를 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는 대자연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경치도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가운데 전체 차 끓이기 과정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산수에서부터 산수와 집 안의 작은 식물과 탁상의 다구까지 모두 보여주고 있다. 전체 다화는 평화롭고 안정되며, 우아한 예술적 특징으로 가득하다. 이 작품은 청대의 차 끓이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어 청대의 차 끓이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실증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청대 차 문화에서는 다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연 다구는 독립적인 다화의 주체가 되어 작품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명대와 비교하면, 청대 문인화는 독특한 개성과 풍격을 갖추었는데 이는 세속적인 미학 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추고 있다.<sup>16)</sup> 청대 문인들은 세속적인 정서를 더욱 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작품도 세속적인 미의식과의 연결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이를 반영한 것이 청대의 淸供圖이다. 청공도<sup>17)</sup>는 문인 회화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로, 다른 문인화 작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구는 더 이상 인물과 사물 사이에 숨겨지지 않고, 대담하게 전체 화면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淸供은 다양한 사물로 이루어진 일종의 장식품이나 祭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辭源』에서는 “새해의 소나무, 대나무, 매화나무를 탁자에 비치하는 것을 歲朝淸供이라고 하고, 조상에게 향을 바치는 것을 淸香供奉이

16) 薛永年, 杜娟, 『清代繪畫史』,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2000, 57쪽.

17) 1644년 明의 胡日從이 편찬한 『十竹齋箋譜』에는 ‘淸供’ 항목에 8종의 문방 기물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胡日從, 『十竹齋箋譜』初集 卷1(版畫叢刊會, 1934). 청공도의 작례로서 申緯가 「碧蘆舫淸供圖」라는 작품을 제작한 예가 있다. 신위의 청공도는 벽로방이라는 서재 안팎에 있었던 송, 석, 매, 죽, 수선화 다섯 가지를 그린 작품이었다. 2023-07-18 11:37 <https://blog.naver.com/chatelain/222752751887>

라고 하며, 농촌의 소박한 음식과 맑은 차를 山家淸供이라고 한다.(新歲的松、竹、梅供几案, 謂之歲朝淸供; 以淸香祭先, 謂之淸香供奉; 鄉居素食淸茶, 謂之山家淸供.)<sup>18)</sup>라고 설명하였다. 다화 중의 淸供은 문인의 책상이나 실내 탁자 위에 진열된 화병과 주전자 등의 다양한 사물을 묘사하는 주제로서, 산수화나 화조화 작품과는 다른 대담성과 생동감이 있다.

다화 작품으로는 錢慧安의 「烹茶洗硯圖」, 阮元的 「竹林茶隱圖」, 薛懷의 「山窗淸供圖」 등이 있다. 이러한 작품은 중국 고대 문인의 생활 품격과 미학적 취향을 보여주는 한편, 문인 생활에서 차 문화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錢慧安 「烹茶洗硯圖」<sup>19)</sup>



이 시기의 차를 소재로 한 다화는 주로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그림의 배경과 표현된 공간은 주로 산과 물가, 울창한 숲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문인들이 차를 즐기는 환경에 대한 고상한 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때의 문인들의 차 마시기는 신체를 가꾸고 정신을 키우는 경지에 이르렀으며, 일상적인 차 마시기와는 전혀 다른 순수한 풍격을 갖추고 있었다.

18) 何九盈·王寧·董琨, 『辭源(第三版·線裝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7, 2408쪽.

19) 2023-11-11 22:32

[https://baike.baidu.com/item/%E7%83%B9%E8%8C%B6%E6%B4%97%E7%A0%9A%E5%9B%BE/4638231?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E7%83%B9%E8%8C%B6%E6%B4%97%E7%A0%9A%E5%9B%BE/4638231?fr=ge_ala)

### 3. 다화 표현공간의 유형과 문화적 함의

#### 1) 다화 표현공간의 유형

##### (1) 皇室의 다화

「宮樂圖」는 당대 궁궐에서 열렸던 궁녀들의 차 모임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시대 궁궐에서의 차 마시는 풍조를 연구하기 위한 근거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宮樂圖」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황실의 차 문화에 대하여 裘紀平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그림 4] 佚名 「宮樂圖」<sup>20)</sup>



「宮樂圖」는 공필과 중채의 기법을 사용하여 12명의 미녀가 음악을 연주하고 차를 마시며 곡을 감상하는 장면을 그려내었다. 대나무로 만든 긴 탁자 가운데에 차 대접 하나가 놓였고, 한 궁녀가 긴 손잡이의 차 국자로 차 대접에 있는 차를 퍼내어 차를 나누고 있다. 5명의 연주하는 미녀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 가면서 손에는 호가, 비파, 고쟁과 생황을 들었고, 한 명은 시립하여 박판을 치면서 박자를 맞춘다. 그 나머지 미녀들은 손에 완선을 들고 음악을 감상하며 차를 마셨는데, 자세가 각기 다르면서 표정은 생동감이 넘치고, 묘사가 섬세하고 색채가 화려하다. 미녀의 몸매는 통통하여 당나라의 넓고 풍성한 여성의 미적 풍조를 보여 준다. 이 그림은 또한 차 마시는 것이 당시 이미 상류층의 일상생활 및

20) 裘紀平, 『中國茶畫』,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14, 31쪽.

우아한 예술과 밀접하게 결합되었음을 보여준다.(宮樂圖以工筆重彩繪寫十二佳麗奏樂茶賞曲場面. 竹編長案中置一茶盆, 一仕女正以長柄茶勺舀取茶盆中的茶, 進行分茶. 五位演奏佳麗, 由右往左, 手持胡笳, 琵琶, 古箏與笙, 一位侍立, 擊打拍板, 以爲節奏. 其餘佳麗手執紈扇, 賞曲啜茗, 姿態各異, 神態生動, 描繪細膩, 色彩豔麗. 佳麗體態豐腴, 展現大唐寬宏健碩的女性審美風尚. 該畫也表明茶飲在當時已與上流社會日常生活以及高雅藝術緊密結合.)<sup>21)</sup>

황실 다화의 대표작은 宋 徽宗의 「文會圖」이다. 宋 徽宗은 평생 차를 즐겼고 그는 궁중에서 자주 차 모임을 열어 신하와 문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품차를 하며 때로는 직접 차를 끓여내기도 했다. 이러한 차 사랑의 습관은 궁중 귀족과 사대부 관리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文會圖」는 궁중 차 모임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였다. 그림 속의 다화는 선명한 색상으로 꾸며져 고요하고 조용한 뜰이 차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나타났다. 그림에 그려진 다양하고 품위있는 다구는 당시 차 문화의 번영을 나타내며, 송대의 차를 끓이는 방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송대의 다화는 궁중에서 번성하여 절정에 이르렀으며, 특히 황실 다화는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색감을 통해 사실감을 더하였다. 당시 통치자들은 茶禮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화로 표현하여 정치인들의 예악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따라서 송대의 황실 다화는 단순히 하나의 예술 형식일 뿐만 아니라 지배자의 의지와 통치 이념이 문화 분야에서 생생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송대의 황궁 내에는 금·바둑·서예·회화·품차·단약·경서·분향 등 이른바 八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차가 포함된 것은 송대 문인들의 수양에서 차 문화가 가지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영하고 있다. 「文會圖」에는 여러 생활 예술 형식과 회화 기법이 융합된 장면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꽃과 향로, 琴 연주, 鬪잔, 도자기 등의 이미지는 송대 다화 예술에 생활 도구

21) 위의 책, 31쪽.

22) 孫曉燕, 「宋代茶畫藝術研究」, 『山西檔案』, 2014, 116~120쪽.

와 예술성을 융합하여 다화 특유의 풍격을 더해주고 있다.<sup>23)</sup> 이는 예술과 생활이 완벽하게 융합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이다.

## (2) 隱居 지식인의 다화

중국 전통 지식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대체적으로 유불도 사상의 영향을 두루 받았다.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유가 사상의 적극적인 入世 사상을 수용하여 공적을 이루고 백성을 구제하는 삶의 가치관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도가와 불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삶의 무상과 무위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곤란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사회 현실을 도피하여 산수의 자연에서 평온한 개인적 삶을 영위하고자 했다.<sup>24)</sup> 陸羽 이전의 문인들 역시 차가 은일 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 이후에 유행한 隱士들의 은일에 대한 추구하고 실제 은거 행위는 품차를 그들 삶의 상징이 되도록 하였고, 문인들에게 있어서 차를 마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은거를 체험하는 상징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되었다.<sup>25)</sup>

전통 시대 지식인은 자연으로 돌아가 품차 활동을 즐겼다. 그러나 자연을 배경으로 한 품차 공간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환경에 국한되지 않았고 자연의 산수를 활용하여 다화에 있어서의 공간 구성은 간결하고 명료해졌다. 대표적인 다화 작품으로는 梁楷의 「觀瀑圖」와 燕肅의 「瀟谷仙儔圖」 등이 있다.

23) 裘紀平, 『中國茶畫』,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14, 52쪽.

24) 楊少青, 「心靈的映像-隱逸文化與明代山水畫風的嬗變」, 蘭州西北師範大學, 2012, 4~7쪽;  
楊少青, 「隱逸文化與中國山水畫的發軔」, 『文藝生活(文海藝苑)』, 2013, 16~17쪽.

25) 關劍平, 「唐代飲茶生活的文化身份-隱逸」, 『茶葉科學』, 2014, 105~110쪽.

[그림 5] 梁楷 「觀瀑圖」<sup>26)</sup>

「觀瀑圖」에는 문인들이 폭포 밑의 바위 위에서 있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어 마치 차를 기다리며 원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인다. 옆에는 세 명의 동자가 있으며 하나는 쉼을 안고 다른 하나는 벼루를 씻고 또 하나는 차를 끓여내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산수 공간에서의 차 마시기가 우아하고 풍요로운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다화에 있어서의 표현공간은 크게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모두 산 속의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濠谷仙儔圖」는 두 명의 문인이 산속에 앉아 있고, 한 구역에 동자들이 차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화에서는 차 마시는 공간과 차 준비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거를 배경으로 한 이러한 다화의 표현 공간은 간단하게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자연의 산과 바위를 배치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분리되지만 모두 산과 산 사이의 계곡과 같은 한 구역에 위치한다. 화면 속의 품차인들은 자연스러운 나무와 돌로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만들며, 차를 준비하기 위한 명확한 가구는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미학적인 도구로 문방구가 동원되며, 함께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난로를 준비하는 정도이다.

26) 2023-11-11 22:38 [https://www.sohu.com/a/479395297\\_121119349](https://www.sohu.com/a/479395297_121119349)

원대 몽골인들이 중원을 점령하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어버린 문인들은 산림에 은거하여 수목산수화에 정성을 담았다. 원대의 다화는 다화의 과도기로 문인들의 은거 생활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주로 문인들의 취미와 차 마시는 환경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었다. 일례로 「盧仝煮茶圖」를 살펴보면, 이 다화는 평탄한 지면을 배경으로 하여 인물 배치가 삼각 구도로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그림 속 인물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편안하게 앉아있는 盧仝은 만족스러워 보이고, 옆에는 책과 준비된 다구가 놓여 있으며, 그의 뒤에는 거대한 태호석이 조화로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화가는 선의 굵기의 변화를 통하여 사물과 풍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풍경에 있어서 실체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속 노부인과 우측에서 있는 인물 사이에 화가는 돌과 식물을 끼워 넣어 인물과 연결시킴으로써 그림의 풍격을 더했다. 주인과 하인 그리고 신하들의 시선은 차에 집중되고 이를 통하여 다화의 주제를 강조하면서 盧仝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다.<sup>27)</sup>

### (3) 문인 사대부의 文會 다화

문인 사대부의 문회는 일찍이 춘추전국 시대에서 시작되었고 당대 상류층의 문회 활동에서 茶禮는 빠질 수 없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당시의 문회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형식과 내용은 송대에도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문회를 표현한 회화 작품 중에는 차를 마시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많으며, 다양한 공간 표현 방식을 보여주었다.

문인 사대부들을 주제로 한 다화는 문인들의 우아한 여유로움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작품들은 차를 마시는 사람의 신분과 활동의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문인 사대부의 문회의 풍격을 반영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인 사대부의 문회 활동은 정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소재로 한 다화에서는 숲과 정원에서의 우아한 만남과 휴식이라는 서정적 공간을 조성하고, 문인들이

27) 賈祺悅, 康佳麗, 陳祖建, 「茶畫中人物活動與茶園景觀的交互營造研究」, 『設計藝術研究』, 2022, 49~53쪽.

품차를 하면서 대화하고 시를 읊조리며 감상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송대 佚名의 「文會圖」에는 문인들이 모여 품차하고 있는 가운데 서화, 골동품을 전시해 놓은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 명의 문인이 탁자 옆에 앉아 있고, 탁자에는 다구가 놓여 있으며, 하인이 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밖으로는 나무가 그늘을 드리워 문인들의 우아한 품차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다화는 소외된 일상에서 벗어난 조용하고 우아한 삶을 추구하는 문인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sup>28)</sup>

「會昌九老圖」는 문인 아홉 명의 모임을 묘사하였다. 여기서의 會昌九老는 白居易(772~846)와 胡杲, 吉皎(760~845), 鄭據, 劉眞, 盧眞, 張渾, 李元爽, 釋如滿 등 아홉 명의 노인을 말하는데, 이 다화는 唐朝 武宗 會昌 5년(845) 3월 14일에 洛陽 履道坊에 있는 白居易 거주지에서 있었던 경로 모임의 장면을 그린 것이다.<sup>29)</sup> 이 문인들은 각각 무리를 이루어 품차와 바둑, 연주, 경치 감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인 네 명은 안에 모여 있고, 차를 준비하는 왼쪽 공간에서는 동자가 차를 끓이고, 우측의 문인들은 차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능 공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품차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였다. 한편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분리한 다화 작품도 있는데, 이러한 예는 「商山四皓會昌九老圖」에 보인다.

[그림 6] 佚名 「會昌九老圖」<sup>30)</sup>



28) 潘仕君, 「宋代文人茶畫中的茶空間解析及設計實踐」, 湖州師範學院, 2022, 58쪽.

29) 裘紀平, 『中國茶畫』, 杭州: 浙江攝影出版社, 2014, 84쪽.

30) 위의 책, 83쪽.

문회를 소재로 한 다화의 표현공간에 있어서 그 배치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품차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종합하고 절충하는 방식이다. 즉 다화 표현공간을 차를 준비하는 공간과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 분리하되 두 공간은 서로 보이고 연결되게 하는 방식이다.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은 작품 중앙에 위치시켜 품차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결합한다. 이 공간 배치 방식은 규모가 있는 많은 인원의 모임을 그려내는 데 적합하며, 서로 다른 신분 계층의 차 마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회 다화에서 문회가 이루어지는 주택 내부 공간은 물품과 가구 간의 배치 관계뿐 아니라 가구와 물품의 종류에도 다양성을 보인다. 공간 디자인은 간결하게도 복잡하게도 구성될 수 있는데, 간결한 배치 조합은 기본적인 휴식 공간과 자연스러운 장식 공간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복잡한 공간 디자인은 품차 공간이나 차를 준비하는 공간을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공간이나 다른 건물 내의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공간은 복잡한 가구 장식 요소로 구성되며, 문인의 연회나 문회 장소와 어울리게 한다. 이 경우 풍격은 가구와 장식의 다양성과 양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 가구와 소품의 장식은 주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화가들은 종종 예술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문구나 경건한 사물을 다화 표현공간에 추가하기도 하였다.

문인들의 문회 형태는 대부분 진대 죽림칠현과 서원 雅集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형태는 문회의 즐거운 분위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마음을 수양하는 공간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미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의 역할도 했다. 따라서 문회에서의 품차를 묘사한 다화의 표현공간은 문인들의 여유로운 생활 분위기를 한층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수양의 공간이 되기도 했다.

#### (4) 종교인의 다화

중국의 차 문화는 오랜 역사적 전통과 함께 다양한 전통 사상을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차 문화의 흥기와 발전은 유불도 사상의 영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불가 禪宗에서의 일반적인 수행은 坐禪이다. 좌선 수행은 모든 잡념을 배제하고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장시간 좌선을 하면 사람은 지칠 수 있어서 선종에서는 계율을 위반하지 않고 수행하면서도 좌선의 피로를 해소해야 했는데, 피로해소에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차였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차에 세 가지 덕이 있다고 하였다.

좌선할 때는 밤새 잠들지 않고, 배가 찼을 때는 소화를 돕거니와, 차는 세속의 잡념을 억제할 수 있다.(坐禪時通夜不眠；滿腹時幫助消化；茶可抑制紅塵之思.)

차의 쓰임에서 차는 맛이 차기 때문에 마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갈증을 해소하고 진액을 생성하고 통증을 억제하고 번잡함을 제거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뼈에 활력을 주고 눈을 맑게 하는 등의 효능은 세심하게 검소한 덕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茶之爲用, 味至寒, 爲飲最宜. 解渴生津、止痛去煩、舒筋活骨、明目等功效, 宜於精行儉德之人.)<sup>31)</sup>

이러한 효능이 있는 차는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승려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사찰에서는 차 재배와 가공뿐만 아니라 차를 즐기고 감상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어 중국의 차 문화를 풍부하게 하였고, 차 마시기의 의미를 단순한 갈증 해소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사원의 정원 안에서 승려들은 경전을 논의하고 품차를 하며, 함께 불교 의식에 참여했다. 사원의 공간은 다양한 기능적 요구에 맞게 변화하였는데, 첫째, 승려들의 대좌 구역인 정원, 둘째, 불사 구역, 셋째, 강론 구역, 넷째, 차 준비 구역 및 교리 구역 등으로 구획되었다. 사원에서 품차를 하거나 차를 준

31) 陸羽著, 杜斌評註, 『茶經』, 北京: 中華書局, 2020, 22쪽.

비하는 활동은 모두 정원 내에서 이루어졌고, 활동 내용과 기능적 구획은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공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승려들의 품차를 소재로 한 다화의 표현공간은 구조는 비교적 완전하면서도 배치는 간단했는데, 이것은 수행 공간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주요 표현공간 영역은 경서 강론 구역이었고, 교리 구역은 돌 탁자와 의자로 구성되고 불사 구역은 불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도교에서 약용으로 쓰이던 차는 점차 도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물이 되었다. 도교에서의 차 마시기와 약 복용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도교의 전파와 확산은 차 문화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도사들의 차 선호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곳곳에 보인다.

쓴 차는 몸을 가볍게 하고 뼈를 바꾸었으니, 옛날 단구자와 황산군이 그것을 복용하였다.(苦茶輕身換骨, 昔丹丘子、黃山君服之.)<sup>32)</sup>

여요 사람 우홍이 차를 따기 위해 산에 들어갔다가 청색 소 세 마리를 모는 도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우홍을 이끌고 폭포에 가서 말하길 “나는 단구자이다. 그대는 갖추어 차 마시기를 잘하고 항상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한다고 들었다. 산중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차가 있을 테니 그대는 나중에 남는 차가 있으면 나에게도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다.(余姚人虞洪入山采茗, 遇一道士, 牽三青牛, 引洪至瀑布, 曰: 予丹丘子也, 聞子善具飲, 常思見惠. 山中有大茗可以相給, 祈子他日有甌犧之餘, 乞相遺也.)<sup>33)</sup>

종교인의 다화 표현공간의 장식은 품차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며, 공간의 풍격을 더욱 강조해 준다. 그림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불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 소재의 가구와 조화롭게 어울린다. 불상의 정교함은 다른 장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불가 사상의 중요성을 더욱 드러나게 하고, 가구와 장식품의 조합은 전체적으로 종교인의 수행에 필요

32) 杜斌, 『茶經 續茶經』, 北京: 中華書局, 2020, 105쪽.

33) 위의 책, 95쪽.

한 것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융합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 2. 다화 표현공간의 문화적 함의

### (1) 유불도 사상과 다화의 융합

전체적으로 볼 때, 다화 작품은 소박하고 우아한 풍격을 드러내며, 문인과 사대부의 심미적인 함의와 정신적인 함축성을 강조한다. 또한 다화는 중국 전통 유불도 사상의 정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불가 사상은 차 속에서 영적인 기탁을 받아 佛理를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가 사상은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일종의 허무한 의경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의 儒者들은 실의에 빠졌을 때 차를 통해 자신의 초월적인 자질을 키워야 했다. 유불도 이세 사상은 通·達·明·智를 추구하였고, 모두 차를 통해서 그것의 一致를 이루고자 하였다.<sup>34)</sup> 중국의 차 문화는 유가 문화의 禮·仁·和, 도가 문화의 自由·自然·無爲, 그리고 불가 문화의 淸·寂·雅와 같은 사상적 가치와 그 의미를 잘 융합해내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 차 문화는 무엇보다 먼저 유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차 문화는 和를 최고의 경지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가 문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도가 사상에서 다화는 道法自然의 정신을 가장 예술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우주와 자연의 관조 속에서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자연 정서를 잘 보여준다고 보았다. 다화 표현공간에 나타난 산수 경치의 본질은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며 자연과 인문 정신은 다화 표현 공간 속에 구현된 차 문화와 결합한다. 도가의 自由·自然·無爲를 추구하는 행위인 隱逸은 다화 표현공간에서 차 문화와 산수 경물이 함께 어우러지며 함축미를 확보하게 하였다. 또 불가의 淸·寂·雅의 경계는 다화 표현공간의 심경과 의경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당대 문인화의 시조인 王維

34) 簡伯華, 『茶與茶文化概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03, 191쪽.

(701~761)는 회화와 자연 경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도리 가운데는 수묵이 최상이니, 자연의 본성을 일으키고 조화의 공을 완성한다. 간혹 가까이 있는 그림으로 천백 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치를 묘사하기도 한다.(夫畫道之中, 水墨最爲上, 肇自然之性, 成造化之功. 或咫尺之圖, 寫百千里之景.)”<sup>35)</sup> 라고 하여 회화를 통해 멀리 있는 자연을 이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자연을 통한 문인 화가의 깨달음과 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과 추구는 차 문화의 정신적 본질이기도 하여 화가는 차를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화를 독특한 경지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趙原의 「陸羽烹茶圖」는 다화와 선종 사상이 융합된 작품으로 작품의 표현공간을 陸羽의 품차 공간의 묘사에 집중하여 작가 마음속의 頓悟를 구현해 내었다. 화면에는 산이 층층이 겹쳐 있고, 먼 산은 물과 가까워서 생기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다. 무성한 숲 사이로 초가집이 숨어 있으며, 집 앞에는 굽은 길이 그윽하고 한적한 오솔길이 화면 밖까지 뻗어 있다.<sup>36)</sup> 이 작품은 생동감이 넘치는 가운데 한적하고 호젓한 마음의 경지를 전해주고 있어, 구애받지 않는 은일을 추구하는 작가의 처세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다화의 표현공간에는 유불도의 사상 정수가 융합되어 있다. 유가 사상은 전통 다화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도가와 불가 사상은 다화의 미학적 방향을 이끌어 다화 표현공간에 문인들의 미의식에 대한 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2) 다화의 미의식 형성

다화의 미적 의미는 창작에서의 조형미와 필묵이 핵심이며, 다화에 있어서의 미의 함축은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미적 함축미에서 내적인 본질 정신으로 승화되는 단계로 이해된다. 그리고 심미적 의미는 뛰어난 예술적 발상과 기법의 확립, 화면 표현공간의 구성 등에 달려 있다. 다화의 심미적 경지는 산수 자연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인식과 뛰어난 표현 기법에서 이루어졌다.

35) 湯麟, 『中國歷代繪畫理論評註·隋唐五代卷』, 武漢: 湖北美術出版社, 2009, 103쪽.

36) 龔書鐸, 『圖說中國史』,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19, 175쪽.

다화의 미적 함축은 화면 意境의 조성에서 시작된다.<sup>37)</sup> 표현공간에 있어서의 여백의 분할, 성김과 뻑뻑함의 대비를 통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화의 미적 의미는 주·객체의 융합에서 비롯된다. 주·객체의 융합은 다화 표현공간의 주요 특징이며, 다화가 전달하려는 의미는 객관적인 사물의 선과 구조를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에 융합시켜 드러낸다. 화가의 주관적 감정과 미의식을 객관적 사상과 융합하여 모든 미적 주체를 움직이는 의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한편 다화의 미의식은 독특한 화면 표현공간 구도를 전체로 하는데 이것이 다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다화의 구도는 전체를 조망하는 畵景式이나 일부분에 집중하는 邊角 구도를 모두 포용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화는 중국화의 전통적인 散點透視 기법과 이동환경 (Polysphere)을 답습하였고 특정 시점으로부터의 산수의 원근 관계를 부각하지 않았다. 역대 화가들은 구도 운용의 규칙성을 강조하며 형식상 대립적인 관계의 균형을 예술적 조화로 강조하였고, 대립과 통일 관계를 잘 다뤄야 좋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8)</sup>

明 仇英의 「松亭試泉圖」는 나무에 가려진 정자 안에 백의의 문인이 앉아서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을 마주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정자 안과 아래에서는 두 동자가 그를 위해 차를 끓여내고 있다. 작가는 광활한 풍경을 마주하고 있는 문인의 감성을 담담하게 차를 마시는 장면과 함께 조화롭게 묘사해내고 있다.

명 唐寅의 「事茗圖」는 가까운 구역에 돌출된 기암과 나무가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높고 우람한 소나무 두 그루가 있으며 아래에는 서재가 있다. 주인은 책상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고, 왼쪽에서는 하인이 차를 끓이고 있다. 마당 옆에는 천천히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고, 다리 위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과 어린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멀리 폭포가 있으며 산안개가 산을 휘감고 있는 조화를 강조하는 풍경이다. 이 작품은 문인이 추구하는 맑

37) 張洲, 『倪瓚詩畫匯通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14, 343쪽.

38) 陶亞萍, 「山水畫章法的形式語言探析」, 『貴州大學學報(藝術版)』, 2014, 87쪽.

고 고요한 경치를 표현하며, 명 문인들의 미의식을 반영하여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다화는 오랜 역사적 변화를 거쳐 오면서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했다. 다화의 표현공간에 나타난 사람과 사물은 모두 차 문화의 외적 표현이지만, 여기에는 강한 정신적 함축과 미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 영역과 미의식의 융합은 차 문화의 역사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적 의의를 확장하여 다화의 표현 형식과 사상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 (3) 문인화의 제재 확장과 문인 의식의 형성

전통 문인이 차를 마시는 것은 차의 덕목과 즐거움을 통해 영적 수준을 달성하는 고품격의 생활방식이었다.<sup>39)</sup> 문인 의식이란 용어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처음 등장했으며 인간의 품성 수양과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陳衡恪(1876~1923)은 그의 「文人畫的價值」에서 “무엇을 문인화라고 하는가? 바로 그림이 문인의 성격을 띠고 있고 문인의 취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 예술적 솜씨만을 신경 쓰지 않고 반드시 그림 외에 문인의 사상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림을 보면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무궁한 감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분명 의심할 바 없는 문인이다.(什麼叫作文人畫, 就是畫裡面帶有文人的性質, 含有文人的趣味, 不專在畫裡考究藝術上的工夫, 必定是畫之外有許多文人的思想, 看了這一幅畫, 必定使人有無窮的感想, 這作畫的人必定是文人無疑了.)”<sup>40)</sup>고 말하였다. 그는 문인화의 요소로 인품, 학문, 재능, 예술에 대한 노력을 들었는데, 문인화는 이러한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뛰어나야 한다고 보았다.<sup>41)</sup> 또한 예술적으로 볼 때 “문인의 그림은 전문가의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문외한도 아닌데, 이 안의 내용은 꿰뚫어 보기 어렵다.(文人的畫, 不是行家畫, 卻也不是全然外

39) 吳智和, 「晚明茶人集團의 飲茶性靈生活」, 『社會科學戰線』, 1992, 52~63쪽 참고.

40) 陳師曾 『中國文人畫之研究』, 杭州: 浙江人民美術出版社, 2016, 49쪽.

41) 위의 책, 58쪽.

行, 這裡面消息, 很難參透的.)”고 했고, “그림과 문사는 다가갈수록 가까워져서 더욱 밀접한 관계가 생겨난다.(繪畫與文辭, 越逼越近, 越有密切的關係.)”<sup>42)</sup>라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그림과 글씨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문인에게 있어 그림을 그리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문인들은 서화의 재능을 겸비한 경우가 많았다. 문인화는 화려함을 버리고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종합예술이다.<sup>43)</sup> 문인화에 익숙한 문인은 품차에도 익숙하였으니 다화의 탄생은 필연적이었고, 다화를 통해 작가의 미적 흥미와 정신적 추구를 담아 낸 품차 공간을 구현해낸 것이다.

다화의 품차 장면은 대부분 야외에 집중되었다. 문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수양으로 인해 종종 환경 선택에 있어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문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차를 즐겼고 이런 삶에서 체득한 자각적인 개성을 다화에 표현했다. 문인들은 차를 음미하면서 내면에 대한 배려와 자연과의 소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화의 표현 공간은 바로 이러한 문인 의식을 반영하였으니 문인화의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를 마시는 풍조가 유행해가던 당대 이후 다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송대에 이르러서 도자업의 발전으로 다구의 형태와 색상은 전에 없던 발전을 구가하였다. 송대에는 汝窯와 官窯, 哥窯, 鈞窯, 定窯의 오대 관요가 등장하여 다기의 모양과 유약 색상을 더욱 정교하게 하였다. 당시 다기에 대한 문인들의 관심과 흥미는 송대의 「文會圖」, 「攬茶圖」 등과 같은 기록 위주의 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文會圖」는 문인들의 모임을 그려낸 다화로 문인화 표현공간의 제재 확장과 문인 의식의 형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다. 우선 우거진 숲속의 정자 사이로 대형 탁자 위에는 과일과 주전자가 준비되어 있다. 다화의 주체인 문인들은 웃는 이도 있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는 이도 있다. 문인들은 더 이상 茶房 안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자연 속으로 자유롭게 드러내어 산수를 즐기면서 자연에 귀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원대

42) 위의 책, 53쪽.

43) 張書珩, 『中國文人畫繪畫藝術』, 呼和浩特: 遠方出版社, 2006, 184쪽.

에 이르러서는 당송과는 다른 사실감을 추구하게 되었고, 명·청대에서는 품차 환경을 묘사하면서茶具의 소박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가면서 다화 표현공간의 제재 확장과 그를 통해 형성된 문인 의식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했다.

#### 4. 결론

중국에서의 다화는 회화와 차 문화가 융합되어 나온 독특한 회화 영역으로 수묵화의 기법과 문인화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 전통 회화 기법을 보여주는 것 외에 각기 다른 시기의 문인 의식과 정서의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다화는 표현공간의 구성을 통하여 작가의 미의식과 당대 문인들의 정서를 구현해내었다. 다화의 표현공간은 시대를 거치며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당대에는 문인들의 품차 행위의 유행과 함께 자연과 조화된 미적 취향을 나타내는 문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송대에는 품차 행위가 더욱 일반화되고 차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여 다화의 표현공간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적 품차 공간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文會 공간, 승려 또는 문인들의 자연에의 품차 공간 등이 다화 표현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원대는 이민족 통치하에서 문인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여 현실을 도피하고 고립적 삶을 선택하였고 이를 반영한 다화의 표현공간은 문인들의 내면 고통의 해소와 독립적인 사유의 경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명대의 다화는 환경 묘사가 이전시대보다 더욱 풍부해졌고 다화의 표현공간은 주택의 뜰에서 자연의 산수로 확장되었다. 청대는 문인들이 다화 창작을 주도했기 때문에 문인 의식을 더욱 다양하게 반영했고, 품차는 문화 활동의 상징이 되었다.

다화 표현공간은 그 내용에 따라 황실, 은거 지식인, 문인 사대부의 문회, 종교인의 다화로 분류할 수 있다. 황실 다화의 표현공간은 선명한 색감을 통

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고 황실의 생활 예술 형식과 회화 기법이 융합된 장면이 많이 등장하여 다화 특유의 풍격을 더해주었다. 은거 지식인의 다화에는 유불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대 지식인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표현공간은 차 마시는 공간과 차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구분되고 문방구를 배치하는 정도의 소박한 도구 활용을 하고 있다. 문인 사대부의 문화 활동은 역대로 다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며 그 표현공간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진 정원을 중심으로 문인들의 품차와 관련된 여유로운 분위기와 정신 수양의 공간으로 나타났다. 차는 종교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의 하나였고 사찰이나 道觀에서 차를 즐기고 참선하며 도를 추구하는 장면은 다화의 표현공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다화의 표현공간의 문화적 함의를 정리하면 첫째, 그것은 다화와 유불도 사상이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화에는 유불도의 사상 정수가 융합되어 나타났으니 유가 사상은 전통 다화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고 도가와 불가 사상은 다화의 미학적 방향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다화는 그 표현공간을 통하여 다화의 독특한 미의식을 형성하였다. 다화의 미적 의미는 창작에서의 조형미와 필묵이 핵심이 되는데, 그 표현공간의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함축미를 통하여 내적인 본질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미의식을 발전시켰다. 셋째, 다화는 문인화의 제재를 확장시키고 그 표현공간을 통하여 문인 의식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국 고대 다화에는 문인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대 유가·도가·불가 사상은 고대 문인들의 삶에 있어서 특히 차 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를 소재로 한 다화에는 이러한 모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차를 마시는 활동은 문인 사대부들의 생활 방식과 세계관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형상적으로 구현한 다화를 통해 중국의 고대 차 문화 생활방식과 그 안에 내재된 문인 정신을 함께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화 연구는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그 영역이 확대될 것이고 연구 의미는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陳文華,『中國茶文化基礎知識』,北京:中國農業出版社,1999.
- 陳繼儒,『茶董小序』,轉引自『續茶經』卷上之一,四庫全書本.
- 陳師曾『中國文人畫之研究』,杭州:浙江人民美術出版社,2016.
- 杜斌,『茶經 續茶經』,北京:中華書局,2020.
- 傅及光,「唐代茶畫、茶碑、茶帖之研究」,『高參通識教育學刊』2006.
- 關劍平,「唐代飲茶生活的文化身份—隱逸」,『茶葉科學』,2014.
- 龔書鐸,『圖說中國史』,成都:四川人民出版社,2019.
- 高蓁希,「茶文化與中國書畫創作精神的契合關係」,天津南開大學,2009.
- 黃慧君,「明后期江南的文人茶空間解讀及當代價值」,蘇州大學,2017.
- 何鑫,楊傑,「明代茶畫藝術研究」,『福建茶葉』,2017.
- 何九盈,王寧,董琨,『辭源(第三版·線裝本)』,北京:商務印書館,2017.
- 賈祺悅,康佳麗,陳祖建,「茶畫中人物活動與茶園景觀的交互營造研究」,『設計藝術研究』,2022.
- 簡伯華,『茶與茶文化概論』,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2003.
- 陸羽著,杜斌評註,『茶經』,北京:中華書局,2020.
- [梁]陶弘景 著,尚志軍 校,『名醫別錄』,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2013.
- [明]徐渭書,駱芑芑編,『徐渭草書二種:捧讀、煎茶七類』,北京:榮寶齋出版社,2000.
- [明]徐渭輯,『刻徐文長先生秘集十一卷』,『四庫存目叢書』.
- [明]陳繼儒,『岩幽棲事』.
- 潘仕君,「宋代文人茶畫中的茶空間解析及設計實踐」,湖州師範學院,2022.
- 裘紀平,『中國茶畫』,杭州:浙江攝影出版社,2014.
- [宋]蘇軾著,孔凡禮點校,『蘇軾文集·書墨』,北京:中華書局,1986.
- 孫曉燕,「宋代茶畫藝術研究」,『山西檔案』,2014.
- 湯麟,『中國歷代繪畫理論評註·隋唐五代卷』,武漢:湖北美術出版社,2009.
- 陶亞萍,「山水畫章法的形式語言探析」,『貴州大學學報(藝術版)』,2014.

- 吳智和,「明代茶人的茶寮意匠」,『史學集刊』第3期,1993.
- 吳智和,「晚明茶人集團的飲茶性靈生活」,『社會科學戰線』,1992.
- 薛晨,周智修,「中國古代品茗空間探究」,『中國茶葉』,2017.
- 薛永年,杜娟,『清代繪畫史』,北京:人民美術出版社,2000.
- 余悅,「中國古代的品茗空間與當代復原—在日本東京演講提要」,『農業考古』,2006.
- 楊少青,「心靈的映像-隱逸文化與明代山水畫風的嬗變」,蘭州西北師範大學,2012.
- 楊少青,「隱逸文化與中國山水畫的發軔」,『文藝生活(文海藝苑)』,2013.
- 朱海燕,「中國茶美學研究\_唐宋茶美學思想與當代茶美學建設」,湖南農業大學,2008.
- 張洲,『倪瓚詩畫匯通研究』,廣州:廣東高等教育出版社,2014.
- 張書珩,『中國文人畫繪畫藝術』,呼和浩特:遠方出版社,2006.

## Abstract

The expression space of Chinese tea painting and its cultural connotation

Wang Yunyan · Lee, Seok Hyoung

Chinese tea culture has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Tea painting related to tea culture has also developed its own artistic ideas and visual communication methods through rich experience and accumulation. Tea painting reflects the beauty consciousness and spiritual pursuit of literati of all dynasties, and creates a unique cultural space by using traditional painting techniques. Tea painting has become the favorite way of artistic expression of literati. In addition to expressing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techniques, its expression space also reflects the changes of literati consciousness and emotions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t integrate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o create an elegant atmosphere and a leisurely space to express the literati's aesthetic taste and strong literati consciousness.

**Key words** : Traditional painting, tea painting, expression space, tea tasting, beauty consciousness,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hought, seclusion thought

투고일: 2023. 10. 10. / 심사일: 2023. 10. 15.~ 2023. 11. 15. / 게재확정일: 2023. 11. 20.

